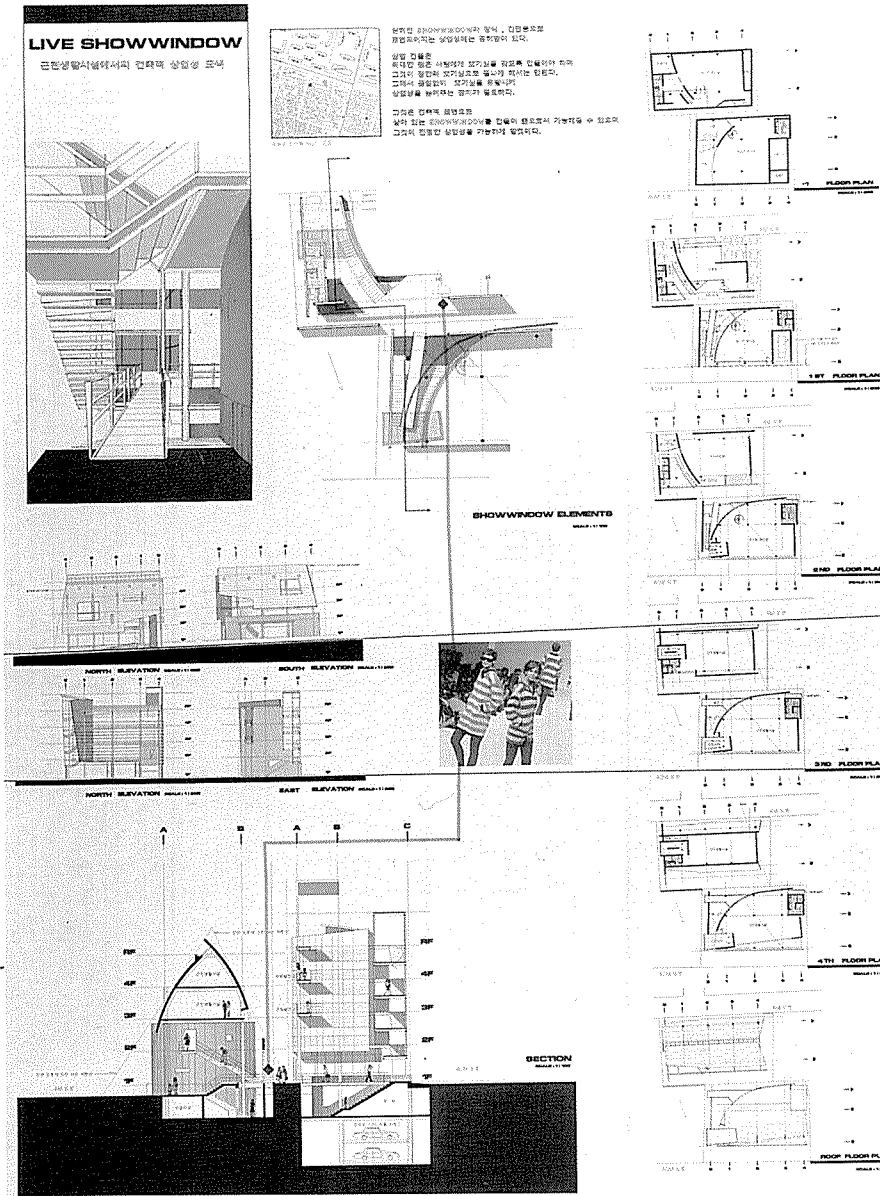


# LIVE SHOWWINDOW

류상보+한상범 / ELTO 건축

Designed by Ryu Sang-Bo & Han Sang-Beom



압구정동을 비롯하여 강남의 소규모 상업 건물들로 이루어진 가로변 풍경들은 대개가 장식적인 구성 요소(showwindow 간판)에 의존하여 상업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으며, 건축은 그것들을 존재시키기 위한 배경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뿐이다.

그러한 상업주의적 성격은 도시인에게 철저히 폐쇄적이며 일회적인 호기심만을 충족시키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은 일회적인 호기심이 아닌 지속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장치를 건축적으로 제안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건축적 공간을 체험시키는 일이다.

그것은 살아 있는 showwindow이며 이를 통하여 오히려 상업성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40m 전면 도로와 4m 이면 도로 사이에는 맞닿은 두 대지는 법적 제한(일조권에 의한 사선 제한)으로부터 생기는 두 대지 사이의 공간을 상업성이 떨어지는 후면 대지의 상업성을 높이는 장치로 제안하기 위하여 후면 대지로 끌어들이는 장치(bridge, 곡면벽)를 전면 대지 내에 설치하고 그것이 또한 전면 대지내 건물에서도 showwindow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상업성이 높은 지하와 1층, 2층이 외부로부터 바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행위 자체가 showwindow의 움직이는 마케팅처럼 밖으로 표현되도록 함으로서 살아 있는 showwindow를 구성하는 것이다.

전면에서 후면으로 이어 있는 일련의 공간은 패션쇼를 하는 무대로 은유되어 그 자체가 도시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showwindow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계획의 주안점이다.

